

# 國內 주요死因과 成人病



柳 槿 永  
(서울醫大 助敎수)

모든 申告件數의 80% 정도에서만 死因分類가 가능하다는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해석해야 한다. <표 1>은 1960년대 이후 17분류에 의한 死因構造를 時系列의으로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西歐型의 死因構造로 變遷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60년대까지도 폐렴, 결핵, 위장관염 등 呼吸器系 및 消化器系 疾患과 傳染性 疾患이 主要 死因을 구성하고 있었던 데 비해, 1980년대에 들어서는 成人病이라 불리는 腦血管系 疾患 등의 循環器系 疾患, 惡性新生物, 損傷 및 中毒 등이 主種을 이루고

病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嬰幼兒期의 死亡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平均壽命이 延長되고 따라서 成人病에 罹患될 대상인구가 그만큼 數의으로 증가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醫學知識이나 技術이 급속도로 진보되어 診斷能力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發生이 많아지게 될 수도 있거니와, 疾病監視 및 報告體系가 과거에 비해 호전되었기 때문에 기인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要因은 生活習慣의 變化와 成人病 誘發環境因子의 增加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代表的인 要因으로 吸煙을 들 수 있다. 吸煙과 肺癌과의 관련성은 대규모 疫學的 研究로부터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喉頭癌, 口腔癌 외에도 몇가지 癌種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吸煙은 腦卒中, 冠狀動脈疾患, 慢性閉塞性肺疾患과 慢性肝疾患에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吸煙에 비해 飲酒는 매우 오랜전부터 인간 생활내에 깊히 뿌리박힌 習慣으로 成人病과의 聯關性 研究에 여러 난점이 많지만, 최근의 疫學的 및 實驗的 研究結果에 의하면 原發性 肝癌, 胃癌 등의

<표 1> 17분류에 의한 사인순위 변동양상(1960~1980년도)

사 망 원 인(ICD)	1961	1965	1970	1974	1980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001~139)	3	4	3	4	6
신생물(140~239)	5	5	4	3	2
내분비, 영양 및 대사 및 면역장애(240~279)	6	7	7	7	8
신경계 및 감각기 질환(320~389)	4	3	8	9	7
순환기계 질환(390~459)	7	6	1	1	1
호흡기계 질환(460~519)	1	1	2	5	5
소화기계 질환(520~579)	2	2	6	6	4
손상 및 중독(800~999)	9	8	5	2	3

<표 2> 사망신고 중 사인분류가 가능한 경우의 사인순위(1986년도)

순위	남 자(%)	여 자(%)
1	뇌혈관 질환(12.31)	뇌혈관 질환(15.71)
2	고혈압성 질환(8.21)	폐, 순환질환 및 기타 심질환(8.75)
3	폐, 순환질환 및 기타 심질환(7.52)	고혈압성 질환(8.64)
4	만성 간질환 및 경변증(7.08)	위의 악성 신생물(5.40)
5	위의 악성 신생물(6.18)	만성 간질환 및 경변증(2.29)
6	간의 악성 신생물(4.71)	결핵(2.22)
7	교통사고(3.51)	간의 악성 신생물(2.20)
8	기타 불의의 사고(4.25)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2.12)
9	결핵(3.63)	교통사고(1.94)
10	자살 및 자상(2.24)	기타 불의의 사고(1.68)

에도 관련이 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食餌要因은 인간이 暴露되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化學混合體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음식자체 혹은 음식중의 특정성분, 영양과다 및 결핍이 成人病의 危險要因으로

冠狀動脈疾患, 腦卒中 등과도 관련이 있다. 食水 중의 nitrite 성분, 알코올, 신선한 야채부족, 절인음식, 염색생선 등은 胃癌誘發因子로 그리고 우유, 녹황색채소 등은 誘發抑制因子로 인정되고 있다. 섬유소음식은 上部直腸 및 大腸癌에 대한 保護效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大部分의 成人病은 疾病의 經過自體가 길며 後遺症을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有病狀態를 유지한다. 따라서 予防과 治療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管理對策을 요하는 바, 急性傳染病에 비해서는 투자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傳染病의 경우와는 달리 單一病原體가 원인인 되질 않고 여러 복합적인 要因이 그들같이 얽혀져 있는 상태에서 發病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를 차단한다해도 管理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成人病 管理는 그 사회가 속한 여러 環境的, 社會文化的 여건에 의해 좌우되며, 시대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보다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특히 發病에 관여하리라 예측되는 危險要인에 대한 疫學的 研究를 통해 발견된 수단을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檢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予防對策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成人病의 罹患에 관련되는 基本資料의 體系的이고 效果的인 蒐集方法이 강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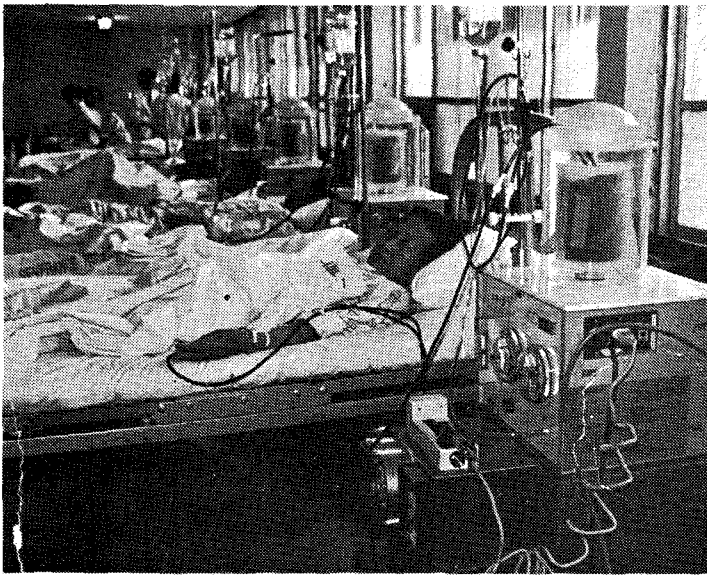
## 우리나라 전체死亡中 成人病이 50%차지 각종危險要因에 대한 疫學的 研究 바람직

이러한 樣相은 死亡申告資料에도 잘 나타나 있는바, 死因順位를 相對頻度로 제시한 <표 2>를 보면 男子에서는 腦血管疾患, 高血壓性 疾患, 肺-循環器系 疾患 및 기타 心疾患, 慢性肝疾患 및 硬變症 그리고 胃의 惡性新生物이 主要 5大 死因을 점유하고 있으며, 女子에서도 腦血管疾患, 肺-循環器系 疾患 및 기타 心疾患, 高血壓性 疾患, 胃의 惡性新生物, 慢性肝疾患 및 硬變症 順으로 나타나, 主要 5大 死因 모두를 成人病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成人病은 惡性腫瘍(ICD 140~208, 230~239), 糖尿病(ICD 250), 高血壓性 疾患(ICD 401~405), 虛血性 心疾患(ICD 401~414), 腦血管疾患(ICD 430~438), 慢性肝疾患(ICD 571~572), 慢性腎疾患(ICD 582~588)을 통칭한다. 우리나라 全 死亡中 이들 成人病이 차지하는 分率은 약 50% 정도로, 미국이나 서독, 일본의 70%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아시아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듯 成人

病種뿐만 아니라 慢性肝疾患, 糖尿病, 高血壓性 疾患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交通事故

작용된다. 動物의 脂肪은 乳房癌, 上部直腸癌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動脈硬化症,



◆우리나라 男子의 경우 뇌혈관질환·고혈압성질환·폐등의 순환기계질환 등이 主要死因으로 밝혀졌다(사진은 本文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급속한 經濟成長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 環境衛生상태의 개선, 醫療의 양적 및 질적인 발전은 결과적으로 健康과 관련된 個人의 行態를 變化시키며, 따라서 한 國民의 健康-疾病樣相도 변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 후반까지 이런 변화에 힘입어 소위 疫學的 變遷이 이루어졌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國民의 疾病罹患水準에 영향을 주어 主要 疾病의 種類를 변화시킨다. 資料마다의 限界點이 있지만 여러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急性傳染性 疾患의 罹患은 감소되어 相對的 重要性이 낮아지고 있으며, 成人病이라 불리는 慢性退行性 疾患이 主要 保健問題로 부각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慢性 疾患은 그 자체의 특성상 結局에 가서는 死亡이란 형태로 귀결되기 때문에, 上記한 疾病樣相의 變化는 결국 우리나라 國民의 主要死因을 변화시키고 말게 된다. 死亡에 관한한 우리나라 國民의 疾病樣相을 관찰하는데 가장 有用한 자료는 政府의 公式發表 統計라 할 수 있다. 政府次元의 死亡申告制度에 의해 집계되는 것이므로 全國民을 가장 近접적으로 대표하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資料를 이용하는 데는 死亡申告率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事實과 더불어서

정우양행  
글루코스모트 Glucoscot

휴대용 혈당측정기는 환자 및 일반인이 병원에 가는 번거로움이 없이 가정, 직장 및 여행 중 본인 스스로 혈당치를 측정하고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소형 혈당측정기입니다.

특징:

- 한방울의 혈액(血液)으로 측정(測定)됩니다.
- 측정범위: 0~1,000mg/dl 물로 닦을 필요가 없음
- 날짜, 회수, 혈당치가 동시 100회까지 기억 재생됨
- 검사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한 휴대가 됩니다.
- 검사 시험지(Strip)을 냉장고 보관이 아닌 실온 보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음.

제조원: DKK Kyoto DAIICHI  
판매원: 정우양행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24-14(경북빌딩 101호)  
전화: 276-0277  
276-0278

※당뇨신문  
“소망”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보내실곳: “대한당뇨협회”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24-14  
경북빌딩 101호  
TEL: 265-9822